

원 저

치위생과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양진영[†]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ult attachment type o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decision

Jin-Young Y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healthy attachment forma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ult attachment patterns o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choice,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that consi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udents enrolled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a university in Daejeon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14, 2020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equency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classifying adult attachment styles into three types, out of a total of 158 people, 62 (39.2%) had the avoidant attachment style, 56 (35.4%) had the secure attachment style, and 40 (25.3%) had th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style appear. Self-esteem according to attachment type ($F=26.224$, $p<0.0001$), empathy ($F=3.944$, $p<0.05$), depression ($F=12.702$, $p<0.0001$), career indecisiveness ($F=4.367$, $p<0.05$). Based on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sub-factors that affect the dental hygiene and adult attachment styles of students with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choice, this study intends to use them as reference materials for career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Adult attachment type,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Career decision

Received: December 25, 2021 **Revised:** December 28, 2021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28, 2021

†Correspondence to Jin-Young Y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00 Hyecheon-ro, Seo-gu, Daejeon 35408, Korea

Tel: +82-42-580-6446, **Fax:** +82-42-581-6301, **E-mail:** prime@dst.ac.kr

I. 서론

대학생은 성인기로 접어들며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주위의 친구, 선배, 이성과의 교류와 관계 속에서 애착 대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애착이란 피양육자가 자신의 주 양육자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적 연대감(emotional tie)을 말한다(Bowlby, 1958). 주로 영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규칙을 만들게 되며, 영유아기의 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이후에 진행되는 정신건강, 친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등의 발달이 원활하다고 알려져 있다(McCormick and Kennedy, 1994; Park, 2006). 또한 성인애착은 인간이 일을 하고 탐색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안전 기반이 되기 때문에(Whaung and Choi, 2002), 대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정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Park and Chung, 2017).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정서적 차원으로서, 자기평가(self-estimation)나 자기-가치감(self-worth)이라 할 수 있으며(Kim and Kim, 2013), 사회적 성취, 성공, 만족감과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Mann et al, 2004),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and Kim, 2011).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해 온정, 관심 등을 갖고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Hong, 2004). 이러한 공감능력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보건계열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시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Han, 2008; Park, 2012). 또한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타인은 핵심적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Phillips, 1997),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대학 시절 공감능력과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이 미래에 담당할 직무는 다른 직종보다 동료 및 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Kim and Kim, 2013). 또한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임상 실습을 수행하면서 비보건 일반 대학생보다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고 졸업 후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감정적인 피로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Yang, 2001; Jeong and Shin, 2006)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와 같이 통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한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결정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심의(1044342-20200514-HR-022-02)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STATA ver. 11.0 software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0.2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6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흡한 2부의 설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15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도구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애착유형(안정애착유형, 회피애착유형, 불안-양가애착유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유형 간 하위변수(우울감,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과 하위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유형이 하위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제 1종 오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①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 검사로, Park(1992)이 번안한 것을 Kim(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척도 6문항,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안척도 6문항,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친밀척도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수행하였으며, 세 하위척도에 대해 애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Kim, 2009). 의존척도와 친밀척도가 평균이상이고 불안척도가 낮은 경우는 안정애

착으로 분류하고, 친밀척도와 의존척도가 낮은 경우에는 회피애착으로 분류하며, 불안척도에서만 높은 경우에는 불안-양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1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의존, 불안, 친밀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0.71, 0.79, 0.60로 나타났다.

② 우울척도[한국판 BDI-II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와 Song(1991)에 의해 번안되고, Lee와 Rhee(2003)가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Beck 우울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0~3점) 척도로 평정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이었다.

③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Park(20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며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 이었다.

④ 공감능력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1996)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구분 | Variables | N (%) |
|----------------------|-----------|------------|
| Sex | Male | 3 (1.9) |
| | Femal | 155 (98.1) |
| Grade | 1st year | 51 (32.3) |
| | 2nd year | 51 (32.3) |
| | 3rd year | 56 (35.4) |
| Academic performance | Upper | 25 (15.8) |
| | Middle | 91 (57.6) |
| | Lower | 42 (26.6) |

조망수용,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등 4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소 당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71이었다.

⑤ 선택적-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Osipow et al(1976)이 개발한 진로미결정검사를(Koh, 1992)가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및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진로결정 2문항, 미결정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범위는 18점~90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으로 성별의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attachment types (secure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anxiety-ambivalent attachment style)

| Type | N | % |
|------------------------------------|----|------|
| Secure attachment type | 56 | 35.4 |
| Avoidant attachment type | 62 | 39.2 |
|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type | 40 | 25.3 |

경우 여성이 155명(98.1%), 남성이 3명(1.9%)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56명(35.4%), 2학년 51명(32.3%), 1학년 51명(32.3%)이었고, 본인의 성적 수준을 스스로 '상' 25명(15.8%), '중' 91명(57.6%), '하' 42명(26.6%)라고 답변하였다.

2. 애착유형에 따른 결과

(1) 애착 유형의 분류

Table 2는 성인애착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총 158명 중 회피애착유형은 62명(39.2%), 안정애착유형은 56명(35.4%), 불안-양가애착유형은 40명(25.3%) 순으로 나타났다.

(2) 애착 유형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미결정의 차이

Table 3은 애착유형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미결정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F=26.224, p<0.0001$), 공감능력($F=3.944, p<0.05$), 우울감($F=12.702, p<0.0001$), 진로미결정($F=4.367, 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애착유형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3.84 (SD=0.50)로 가장 높았다. 불안-양가애착유형은 공감능력 평균 점수가 3.32 (SD=0.36)로 가장 높았고, 우울감 평균점수 1.68 (SD=0.45)와 진로미결정 점수도 평균 2.95 (SD=0.57)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indecisiveness according to attachment types

| Dependent variable | Attachment types | N | M | SD | F | p | Scheffe |
|-----------------------|------------------------|----|------|------|--------|------|---------|
| Self-esteem | Avoidant (a) | 62 | 3.56 | 0.53 | 26.224 | .000 | c<a<b |
| | Secure (b) | 56 | 3.84 | 0.50 | | | |
| | Anxious-ambivalent (c) | 40 | 3.10 | 0.44 | | | |
| Empathy | Avoidant (a) | 62 | 3.16 | 0.29 | 3.944 | .021 | b<c |
| | Secure (b) | 56 | 3.14 | 0.37 | | | |
| | Anxious-ambivalent (c) | 40 | 3.32 | 0.36 | | | |
| Depression | Avoidant (a) | 62 | 1.42 | 0.27 | 12.702 | .000 | a, b<c |
| | Secure (b) | 56 | 1.34 | 0.31 | | | |
| | Anxious-ambivalent (c) | 40 | 1.68 | 0.45 | | | |
| Career indecisiveness | Avoidant (a) | 62 | 2.71 | 0.58 | 4.367 | .014 | b<c |
| | Secure (b) | 56 | 2.58 | 0.66 | | | |
| | Anxious-ambivalent (c) | 40 | 2.95 | 0.57 | | | |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indecisiveness

| Sub-variable | Dependence | Unrest | Intimacy | Self-esteem | Empathy | Depression | Career-indecisiveness |
|-----------------------|------------|---------|----------|-------------|---------|------------|-----------------------|
| Dependence | 1 | | | | | | |
| Unrest | -.519** | 1 | | | | | |
| Intimacy | .293** | -.387** | 1 | | | | |
| Self-esteem | .508** | -.546** | .192* | 1 | | | |
| Empathy | -.074 | .266** | .105 | -.100 | 1 | | |
| Depression | -.460** | .373** | -.044 | -.582** | .231** | 1 | |
| Career indecisiveness | -.254** | .300** | -.048 | -.381** | .277** | .334** | 1 |

* $p < 0.05$, ** $p < 0.01$, *** $p < 0.0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애착과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미결정 하위변수간의 상관분석

Table 4는 주요변수인 하위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의존척도는 불안($r = -0.519$), 우울감($r = -0.46$), 진로미결정($r = -0.254$)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밀($r = 0.293$), 자아존중감($r = 0.508$)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애착불안척도는 친밀($r = -0.387$), 자아존중감($r = -0.54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능력($r = 0.266$), 우울감($r = 0.37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애착친밀척도는 자아존중감($r = 0.192$)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감($r = -0.044$), 진로미결정($r = -0.048$)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우울감($r = 0.231$), 진로결정($r = 0.277$)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 < 0.01$), 우울감은 진로미결정($r = 0.334$,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self-esteem, empathy, depression, and career indecisiveness according to attachment subscale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SE | β | t | p | R ² | adj R ² |
|-----------------------|----------------------|-------|---------|--------|-------|----------------|--------------------|
| Self-esteem | Intimacy | 0.070 | -0.057 | -0.819 | 0.414 | 0.371 | 0.358 |
| | Dependence | 0.066 | 0.315 | 4.183 | 0.001 | | |
| | Unrest | 0.067 | -0.405 | -5.190 | 0.001 | | |
| Empathy | Intimacy | 0.050 | 0.239 | 2.897 | 0.004 | 0.124 | 0.107 |
| | Dependence | 0.048 | 0.058 | 0.651 | 0.516 | | |
| | Unrest | 0.048 | 0.388 | 4.218 | 0.001 | | |
| Depression | Intimacy | 0.049 | -0.160 | 2.111 | 0.036 | 0.258 | 0.243 |
| | Dependence | 0.046 | -0.386 | -4.715 | 0.001 | | |
| | Unrest | 0.047 | 0.235 | 2.767 | 0.006 | | |
| Career-indecisiveness | Intimacy | 0.090 | 0.096 | 1.153 | 0.251 | 0.111 | 0.094 |
| | Dependence | 0.086 | -0.147 | -1.642 | 0.103 | | |
| | Unrest | 0.087 | 0.261 | 2.815 | 0.006 | | |

(4) 애착 하위 척도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 능력, 진로미결정의 회귀분석

Table 5는 애착의 하위척도인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착불안이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우울감, 진로결정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애착의존($\beta=0.315$, $p=0.001$)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애착불안($\beta=-0.405$, $p=0.001$)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애착친밀($\beta=0.239$, $p=0.004$)과 애착불안($\beta=0.388$, $p=0.001$)은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애착친밀($\beta=-0.160$, $p=0.036$)과 애착의존($\beta=-0.386$, $p=0.001$)은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애착불안($\beta=0.235$, $p=0.006$)은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째, 애착불안($\beta=0.261$, $p=0.006$)은 진로미결정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치위생과 대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한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결정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은 성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영유아기의 애착과 매우 비슷하며 과거 영유아기의 애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성인애착유형은 3가지 종류 안정(secure), 회피(avoidant), 불안-양가애착(anxious-ambivalent)으로 분류된다(Kim and Kim, 2013).

이 유형들을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의 특징에 따라 설명하면, 안정애착유형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 가능하고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회피애착유형은 타인을 신뢰 하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고 낮은 기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양가애착유형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Kim et al, 2011).

본 연구 결과 회피애착유형(39.2%)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안정애착유형(35.4%), 불안-양가애착유형(25.3%)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피애착유형(26.5%), 불안-양가애착유형(25.2%), 안정

애착유형(20.4%) 순으로 나타난 다른 연구 결과(Kim and Kim, 2013)와 회피애착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유사하나, 그 외 유형의 분포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애착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정애착유형이 회피애착유형이나 불안-양가애착유형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Kim, 2009),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구결과에서도 회피애착유형이나 불안-양가애착유형보다 안정애착유형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Kim and Kim, 2013)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유형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3.84 (SD=0.50)로 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Collins와 Read(1990)가 자아에 대한 작동모델로서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안정애착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Kim, 2009)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공감능력, 우울, 진로미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감능력은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3.32 (SD=0.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Kim과 Kim(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안정애착유형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울감은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가장 높은 1.68 (SD=0.45)로 나타났고, 안정애착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애착유형에서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Kim과 Kim(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애착에 대한 선행 연구들(Park, 1992; Kim, 2002)에 따르면 유아 및 아동기의 애착유형 또는 특성이 아동기 이후인 청소년기와 청년기, 장년 그리고 노년기

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Kim, 2009).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접어드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보다 또래, 이성 친구 등과의 성인애착 경험이 보다 중요해지는 단계이다. 잠재적인 직업들을 탐색하고 이를 직업 선택으로 확정지어야 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래나 이성 친구, 선배, 교수 등과의 교류 등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다(Kim et al, 2011).

이렇듯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성인애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 발달 및 진로 결정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와의 애착에 집중되어 있고(Kim and Kim, 2009), 성인애착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Kim et al, 2011). 그중 성인애착이 진로미결정과 갖는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에 있어 느끼는 불안이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Tokar et al, 2003),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애착유형이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전반적인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Kim and Lim, 2005).

애착의 하위척도는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착불안의 세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Kim, 2009). 애착친밀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를 나타내고, 애착의존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은 언제나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한다. 애착불안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도에서 높고, 불안척도가 낮은 경우 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하고,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도에서 낮은 경우를 회피애착유형으로 분류하며, 불안척도에서 높은 경우 불안-양가애착유형으로 분류한다(Kim, 2009).

따라서 애착의 하위척도인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착불안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결정에 어

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불안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의존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의존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불안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공감능력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애착친밀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친밀이 증가할수록 공감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은 애착불안이 우울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애착의존은 우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의존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애착친밀이 우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친밀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에서는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Lee(2011)의 연구결과 불안정애착과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상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진로미결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힌바(Lee, 2011)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전 선행연구에서도 애착유형을 구별하여 애착의 하위척도에 따라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의 종속변수

를 추가하여 실시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다수가 여성인 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전체 치위생과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더 세분화하여 애착유형의 하위척도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애착유형 측정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유형 측정에 선행연구들과 같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경우 오류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후속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V.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0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1044342-20200514-HR-022-01)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VI. 참고문헌

- Bartholomew K, Horowitz L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 Pers Soc Psychol* 1991;61(2):226-44.
-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 J Psychoanal* 1958;39(5):350-73.
- Collins NL, Read SJ.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 Pers Soc Psychol* 1990;58(4):644-63.
-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 Sel Doc Psychol*

- 1980;10:85.
- Han HJ. Trends and current issues in health services quality improvement: case of the United States. *Qual Improv Health Care* 2008;14(2):101-14.
- Hazan C, Shaver P.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 Soc Psychol* 1987;52(3):511-24.
- Hong KM.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level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6;12(2):170-7.
- Kim GH, Kim KH. Anger,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femal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3):233-41.
- Kim HJ.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 attachment,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and therapeutic alliance of the playtherapist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Kim MH, Kim MS.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in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a major in health science. *J Soc Sci* 2013;29(1):23-37.
- Kim SI, Kang MC, Kim YK.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based 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Korean J Couns* 2011;12(5):1703-18.
- Kim SI, Kim CD.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s: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Korea J Couns* 2009;10(3):1573-91.
- Kim YM. Effect of attachment style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Daejeon: Hannam University; 2009.
- Kim YK, Lim S. Mediation through vocational self-concept for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and interdependence on career indecision. *Korean J Couns* 2005;6(1):171-84.
- Kim YS. A relation of attachment type,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adolescence. [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 Koh H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c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 Lee EH. The impact of insecure attachment and ego 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 2011;16(2):401-25.
- Lee MS, Rhee MK. A development of Korea Depression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3;42(4):492-506.
- Lee YH, Song JY.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 Clin Psychol* 1991;10(1):98-113.
- Mann M, Hosman CM, Schaalma HP, de Vries NK.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 Res* 2004;19(4):357-72.
- McCormick CB, Kennedy JH.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994;23(1):1-18.
- Osipow SH, Carney CG, Winer JL, Yanico B, Koschier M.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76.
- Park EK.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2.
- Park HJ. Counseling self-efficacy and empathic ability of the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Park JH, Chung SK. Depression, anger express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in university nursing. *AJMAHS* 2017;7(1):519-32.
- Park JY. A case study for decreasing depression with somatization and improving self-esteem of adolescent through the dance movement therapy [master's thesis]. Asan: Soonchunhyang University; 2018.
- Park S. Path model of attachment style on social anxiety: mediating effect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Seoul: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6.
- Park 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 Educ Res* 1996;34(5):143-66.
- Phillips SD. Toward an expanded definition of adaptive decision making. *Career Dev Q* 1997;45(3):275-87.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Tokar DM, Withrow JR, Hall RJ, Moradi B.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 Couns Psychol* 2003;50(1):3-19.
- Whaung E, Choi HK. Effect of couple attachment on the male young adult's job attachment and job quality. *Korean J Dev Psychol* 2002;15(1):123-46.
- Yang S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KPMHN* 2001;10(3):376-90.